

오피니언

월/요/광/장

김병식



대선이 이를 후로 다가 왔다. 나라의 차기 지도자인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직접 선출하는 대선은 결과를 떠나, 즐거운 축제적 행사이다. 서로 다른 생각과 처지를 국가의 관점에서 노출시켜 5년 주기마다 정리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도 매우 뜻 깊은 일이다.

그러나 이번 대선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지 못하는 것 같다. 여당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이나, 야당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 아직 지지할 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사람, 모두 이러저러한 이유로 속내가 그리 편치 못하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느끼는 대선 스트레스는 좀 많은 편이다. 어떤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일반인이 크게 신경 쓰지 않으면 좋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느끼지 않는 것 같다. 여야 후보를 지지하는 기반이 지역마다 확연히 달라 상대 지역의 후보 측이 내는 정치적 말과 행동 등에서 많은 상처를 받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선거 결과가 따라 오랫동안 불이익을 받았던 경험을 가진 이쪽 호남 사람들이 갖는 스트레스는 상대적으로 더 크다.

또한 이에 더하여 이번 대선에서는 이

는 사이엔가, 대폭으로 늘어나버린 종편을 비롯한 여러 언론 매체들이 보여주고 있는 보도 태도 때문에 스트레스가 더 늘었다. 제철 만난 듯, 검증되지 않은 정치 쟁론가들과 혼란되지 않은 방송 진행자들이 사용하는 무분별하고 거친 표현 때문이다. 내용도 너무 자기 중심에 치우쳐 반

18대 대선과 안철수 현상

대 측 지지자들에게 필요 이상의 상처를 주고 있다.

사실, 다 아는 바와 같이 아름다움은 균형 잡힌 배려에서 나온다. 사회적 욕구가 강한 사람에게 시비를 초월한 중도적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무리인 줄 알지만, 지금의 제도권 언론이 보여주고 있는 보도 태도는 지켜야 할 금도를 넘고 있다는 생각이다. 겉으로는 공공을 내세우면서도, 감자에 편드는 상업적 논리와 수궁하기 힘든 자사 또는 자기 이익을 강변하는 일이 너무 빈번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선을 긍정적 관점에서 주목하고 싶은 이유가 따로

하나 있다.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은 새로운 현상, 즉 '안철수 현상'에 대한 이해 때문이다.

이 현상은 '안철수라는 개인'에 국한된 정치 공학적 사안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이 현상이 일어나게 된 배경과 의미에 대하여는 향후, 전문가들이 보다 심층적으로 검토하겠지만 대선이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정치적 이해 관계 때문에 그 의미를 놓치고 있어 한번 되짚어 보고 싶다.

여러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의 변화는 새로운 도구와 등장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번 '안 현상'에 의한 변

화는, 우리의 빠른 정보화가 만든 현상이다. 즉 스마트 폰의 등장(12월 현재, 스마트 폰 사용자가 국민의 60%로 3200만 명이다)으로 젊은 세대들이 자기들의 정치적 견해를 적극적으로 표현, 가능하게 됨으로써 생긴 현상이다.

비록 중단되었지만 욕망적 의도가 거의 없었던 비정치인을 국가의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의 유력한 후보로 밀어 올린 이번 사건은 결코 평범한 정치적 현상은 아니다. 이론적으로만 회자되던 '여론과 민심을 하향식에서 상향식으로 바꾼 실제 사례'이기 때문이다. 이는 과거 선거절에만 나타나던 돌발적 현상과는 다르다

는 생각이다.

이 현상으로 제도권 언론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여론 전달의 독과점이 현실적으로 무너지고 있고, 이로 인해 기존의 정치 지형도 바뀌고 있다. 즉 SNS에 의하여 실시간으로 사실 여부를 검증하게 됨으로써 가능하게 된 일이다. 향후에도 이 현상은 가속될 것이라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아시아사회 이 현상의 기저에는 아날로그 기존 세대에 대한 디지털 신세대의 불만과 분노가 자리잡고 있다. 정부가 불공정하게 경제의 틀을 적용하여 일자리 등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여기는 젊은 세대들의 반발이다.

이에 매우 다행스럽고 고마운 것은 우리의 대선이라는 제도적 틀 속에서 이 현상이 잉태되었고, 과거와 같은 데모가 아닌 방법으로 흡수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이번 대선의 선 순환적인 긍정적 기능으로 높이 평가하고 싶다.

문제는 향후 이 사회 현상을 기록권 세력인 정치권이나 제도권 언론이 어떻게 조화롭게 받아들이느냐이다. 이점에서 선거 결과가 더 궁금해진다. 꼭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인가 보다는 이 '안철수 현상'이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수용되는지의 과정을 지켜보고 싶기 때문이다. 아무튼 정치 쇄신으로 대변되는, 안 현상의 향후 추이가 궁금하다.

(초당대 총장)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법조칼럼



황나영

국민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국가에 있어, 범죄 피해자에 대한 구조와 지원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에 법무부, 검찰에서는 범죄 피해자를 돕기 위한 제도들을 시행 중인데 아직 그 내용이 잘 알려지지 않았다. 이에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의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생명이나 신체를 해치는 범죄 때문에 사망하거나 장해나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손해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에 일정 요건 하에 그 피해를 보전해 주기 위한 금원을 지급하는 범죄피해구조금 제도가 있다. 자기 또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노력

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서 고소·고발 등 수사당서를 제공하거나 진술·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다가 구조 피해자가 된 경우도 일정 요건 하에 범죄피해구조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살인·강도·강간·상해·방화 등 범죄로 인해 정신적·신체적 치료를 받은 경우에 일정 요건 하에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그리고 살인·강도·강간·상해·방화 등의 범죄 피해를 당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인건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및 사건 담당 검사실에 스마일센터 지원을 요청하면, 법무부가 설립한 심리치료 기관인 '스마일센터'를 통해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고 임시보호시설도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법무부에서는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이 범죄로 인하여 기존 주거에서의 생활이 부적절할 경우, 국토해양부의 국민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전세임대주택을 저렴한 가격에 임대받을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에 추천하는 주거지원 제도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중대범죄의 신고자, 범죄 피해자, 증인인 그 친족 등이 보복의 우려가 있어 신변의 안전을 특별히 보호해 주어야 하는 경우, 담당 검사실에 요청하면 긴급보호시설에 일정 기간 거주하여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한편 범죄 피의자나 중대범죄의 범죄 신고자 또는 그 친족 등은 관련 재판이 종료할 때까지(예외적인 경우 중대범죄의 수감자가 출소한 때로부터 1년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음) 담당 검사실에 신청하면, 위치확인장치를 지원받을 수 있다. 위치확인장치를 소지하고 있다가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때 버튼을 누르면 보안업체에 연결되어 112신도 및 현장출동 조치가 있게 되고, 미리 설정해 둔 연락처로 연결되어 통화를 할 수도 있다.

그리고 범죄 피해자가 주거를 이전할 경우 이전비(실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특히 학교폭력 피해자가 전학을 위해 이사하는 경우에도 이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특정범죄신고자보호법 제2조 제1호

(광주지검 형사부 검사)

기고



박남연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다. 미국 대기업의 임원이었던 웨스 킹슬리라는 사람은 우연히 법고래소를 관촬하게 된다. 바다 최강의 포식자인 법고래가 잘 통째로 모습을 보이고는 조련사에게 비법을 물었다. 그러자 조련사는 '훈련시키는 과정에서 법고래의 잘한 행동에 대해 칭찬을 해주어서 완벽히 법고래소를 연출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5톤이 넘는 집체만한 고래가 점프하는 것을 어느 날 당장 한순간에 가르친 게 아니라 아가 고래 때부터 조금씩 뛰웠을 때 칭찬하고, 고래가 좋아하는 고기를 던져 주면서 동기를 부여했다니 나중에는 6미터 이상을 뛰어 넘는 재주를 부리게 되었다는 것이다.

칭찬은 이처럼 동물에게도 동기를 부여하는 데 인간사회에서는 더 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금년도 우리 시정의 안팎을 돌이켜 보면 칭찬과 격려보다는 쏟아지는 비판으로 어느 해보다 힘겨웠다. 시민사회의 많은 비판을 받았던 총인사실 입찰 비리 사건, 3D한미합작법인 투자사건 등 몇 가지 일에서 오와고 있었음을 인정한다. 시민의 열세로 운영되고 시민의 행복을 끝까지 책임져야 하는 시정에서 오류와 실패가 허용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수만 가지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현실적으로 행정에도 실수와 오류가 없을 수는 없다. 민선 5기에 이룬 괄목할 만한 수많은 성과들은 묻혀버리고 몇 가지 사업의 문제점이 지나치게 부각되는 '비판 과잉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던가 돌아켜본다.

우리 시민이 대대로 계승해야 할 광주정신의 근간은 비판정신에 기초한 사회변화이다. 우리 시민이 보여준 억압적 질서에 대한 비판정신과 불의에 대한 분노가 광주를 세계적 민주화의 성지로 올려놓은 것도 역사적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권위주의 체제가 아니고 민주적인 자치시대에 살고 있다. 권위주의에 대한 투쟁과 자치체제에 대한 비판이 동일하게 취급되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한다. 과거 독재체제는 근본적으로 타파되어야 할 대상이기에 비타협적인 투쟁이 필요했었지만 '지방자치체제'는 시민이 보란 발 전시켜야 할 '시민 모두의 사회적 자산'이므로 비판과 격려가 균형을 이루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적절한 비판은 사회질서의 건강성을 유지시키지만, 과잉된 비판은 지역공동체의 자긍심과 활력을 떨어뜨리고 냉소주의를 확산시킨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민선 5기 들어 추진했던 수만 가지 사업 중에 정말 큰 성과를 창출해 낸 일들이 적지 않다. 도청별관 보존문제, 세계최초 재개발 방식의 2015하계U대회 선수촌 조성, 창의

적인 재원확보를 통한 야구장 신축, 전국 최초 자치구간 경계조정, 28년을 끌어온 택시 6부제의 해결, 부산까지 추월한 역대 최대의 수출실적, 무등산 정상개방,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GIS2캠퍼스 6천여 유치 등 실로 헤아릴 수조차 없을 만큼 많은 성과들이 있었다.

이러한 성과들은 민선 5기 들어서 광주시의 수상실적과 시상금을 통해서도 확연하게 드러난다. 중앙부처의 각종 평가를 통해 받은 시상금이 올해에만 11월 말 현재 47건 192억 원에 달하고 민선 5기 2년 5개월 동안 총 140건에 무려 882억의 정부포상금을 확보했다.

광주시가 이런 성과를 거둔 것은 불철주야 오직 시정에만 전념하는 강준태 시장을 중심으로 공무원들의 피마이 모인 결과가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시설

인재로 드러난 영광 물막이 붕괴사고

(人災)

영광군 염산면 송암리 일대 임시 물막이가 붕괴돼 염전과 농경지 등에 큰 피해를 냈다. 이 사고는 주민들이 붕괴 위험을 수차 지적했음에도 목살당한 예견된 인재(人災)라는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

지난 14일 비바람에 만조가 겹치면서 송암리 수문공사를 위해 설치한 길이 60m, 높이 3m의 임시 물막이 중 일부가 무너졌다. 이 사고로 염전 34.4ha, 농경지 8.5ha가 바닷물에 침수됐으며, 주택·소금창고 등도 피해를 입었다.

군은 공무원과 중장비 등을 동원, 응급복구에 나서 하루가 지난 15일 어느 정도 수습하긴 했지만 주민들은 태풍에 이은 또 다른 재난에 가슴앓이를 하고 있다. 지난 8월 태풍이 3차례 휩쓸고 가면서 백수피해를 눈물 흘렸고 보리를 심었지만 이마저도 바닷물에 모두 침수된 것이다. 게다가 이곳은 논밭보다 염전이 많은 지역으로, 모두 물에 잠기고 시설마저 망가지 주민들의 삶은 막

막하기만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큰 문제는 일부 주민들이 붕괴 위험을 수차 시공업체에 알렸는데도 이를 방치했다는 점이다. 군 관계자는 "비바람과 만조를 견디지 못하고 임시 물막이가 무너졌기 때문에 시공업체에 책임이 있다"며 "보상문제는 주민들과 업체간 합의를 이끌어내고, 합의가 어렵다면 업체에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업체측은 군에도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다. 임시 물막이가 만들어진 곳이 지반이 약한 개펄이어서 이를 보강을 해왔으며, 군에서 안전한 공법으로 설계를 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결과적으로 시공업체나 영광군이 주민들의 지적을 반영했다면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인재였다든 점에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이른 사고 원인을 조속히 규명해 피해 보상에 나서야 하며,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광주시 '이상한 계약'으로 혈세 낭비하다니

광주시가 광주영상복합문화관 민간 투자자로부터 3년간 수익금은 물론 관리비 등 공과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계약을 취소할 경우 민간투자자에게 10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되돌려주기로 약정한 탓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이다.

시언론에 따르면 지난 2009년 192억 원의 예산을 들여 광주시 동구 서석동에 영상복합문화관을 개관하면서 (주) 시언론디자인이 17억 원을 투자하는 조건으로 2019년까지 문화관 내에 문화콘텐츠 테마타운을 조성·운영토록 했다. 이 과정에서 시언론디자인은 분기당 매출의 6%와 공과금, 관리비를 시에 납부하기로 했다.

하지만 시언론디자인은 2010년 상반기 단 한차례만 매출 수익의 일부를 납부한 뒤 지금까지 1700만 원 가량을 내지 않고 있다. 특히, 공과금 등 건물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아 3700만 원에 이르는 관리비가 혈세로 충당되고 있다.

그런데도 광주시는 이렇다할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시언론디자인이 사업을 철수할 경우 투자액 17억 원에 대한 해지보증금을 시가 돌려주기로 약정한 때문이다. '이상한 계약'에 따라 피해가 시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것이다.

시언론디자인 측은 오히려 광주시가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계약 당시 광주시가 문화재단이 2012년 개관하면 유동인구가 10만 명이 넘을 것이라고 했지만 실제와는 차이가 커 매년 적자가 늘고 있다는 주장이다.

결과적으로 광주시가 계약을 잘못 체결 발단을 찍고 있는 격이다. 여기에, 계약 자체를 '비밀' 조건으로 한 것도 문제다. 시가 사업자에 끌려다니는 게 비밀에 있지 않겠나. 광주시는 책임을 통감하고, 속히 가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업자와 협상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되, 여의치 않다면 법적 대응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언제까지 혈세만 낭비할 수 없는 일이다.

無等鼓

마야족은 기원전 수세기 전부터 중앙 아메리카 열대 밀림에 도시국가 형태의 제국을 건설했다. 고대 마야제국은 백시과 남동부와 파테말라 등 유카탄 반도를 중심으로 불가사의한 문명을 일구며 전성기를 구가하다 10세기께 수수께끼처럼 사라져버렸다.

태양과 달을 숭배한 마야인들은 천문학과 역법, 수학에 뛰어났다. 20진법을 사용하던 그들이 천체의 운동을 계산한 것은 이 마야력(曆)이다. 20일을 한 달로 하고, 1년을 18개월과 별도의 5일을 덧붙여 365일로 했다. 360일은 툰(tun), 7200일은 카툰(katun), 14만4000일은 박툰(baktun)으로 셈했다.

마야의 천문학자들은 세상의 한 주기가 13박툰으로 이뤄진다 고 보고 자신들은 그중 6번째 태양주기에 6박툰에 살고 있음을 돌 달력에 기록해놓았다. 현대 고고학자들이 계산해보니 BC 3114년에 시작한 대주기가 끝나는 때는 2012년 12월 21일이었다.

마야인들이 지목한 태양대주기의 마지막 날이 임박하면서 세계적으로 종말론이 다시 유행하고 있다. 러시아 마을 예선 시민들이 성냥과 양초, 설탕을 사재기하는가 하면 여성교도소 수감자들이 집단 히스테리 증세를 보이며 탈옥을 감행하거나 발작을 일으켰다.

프랑스 남서부의 부가라크산은 최후의 날에도 안전한 곳으로 소문나면서 종말론자들이 몰려들자 접근을 차단했다. 중국의 40대 남성은 저축한 돈을 땅 털어 '노아의 방주'를 만들고 있다고 한다.

그런가하면 멕시코와 파테말라, 온두라스 등 마야문명권 국가들은 때마침 '종말 관광' 특수를 누리고 있다. 급기야 각국 정부와 미국 항공우주국(NASA), 교황청까지 나서 '종말론은 오해이자 근거 없는 루머'라 세상의 한 주기가 13박툰으로 이뤄진다 고 보고 자신들은 그중 6번째 태양주기에 6박툰에 살고 있음을 돌 달력에 기록해놓았다. 현대 고고학자들이 계산해보니 BC 3114년에 시작한 대주기가 끝나는 때는 2012년 12월 21일이었다.

마야인들이 지목한 태양대주기의 마지막 날이 임박하면서 세계적으로 종말

론이 다시 유행하고 있다. 러시아 마을 예선 시민들이 성냥과 양초, 설탕을 사재기하는가 하면 여성교도소 수감자들이 집단 히스테리 증세를 보이며 탈옥을 감행하거나 발작을 일으켰다.

프랑스 남서부의 부가라크산은 최후의 날에도 안전한 곳으로 소문나면서 종말론자들이 몰려들자 접근을 차단했다. 중국의 40대 남성은 저축한 돈을 땅 털어 '노아의 방주'를 만들고 있다고 한다.

그런가하면 멕시코와 파테말라, 온두라스 등 마야문명권 국가들은 때마침 '종말 관광' 특수를 누리고 있다. 급기야 각국 정부와 미국 항공우주국(NASA), 교황청까지 나서 '종말론은 오해이자 근거 없는 루머'라

세상의 한 주기가 13박툰으로 이뤄진다 고 보고 자신들은 그중 6번째 태양주기에 6박툰에 살고 있음을 돌 달력에 기록해놓았다. 현대 고고학자들이 계산해보니 BC 3114년에 시작한 대주기가 끝나는 때는 2012년 12월 21일이었다.

마야인들이 지목한 태양대주기의 마지막 날이 임박하면서 세계적으로 종말

론이 다시 유행하고 있다. 러시아 마을 예선 시민들이 성냥과 양초, 설탕을 사재기하는가 하면 여성교도소 수감자들이 집단 히스테리 증세를 보이며 탈옥을 감행하거나 발작을 일으켰다.

프랑스 남서부의 부가라크산은 최후의 날에도 안전한 곳으로 소문나면서 종말론자들이 몰려들자 접근을 차단했다. 중국의 40대 남성은 저축한 돈을 땅 털어 '노아의 방주'를 만들고 있다고 한다.

光 卍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培樂 편집국장 曹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지11(인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경정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정경부 2200-612	체육팀 2200-697	광고매체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대표 FAX 222-4918>	사건팀 2200-693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사회부 2200-616	조사부 2200-571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대표 FAX 222-4267>	전산팀 2200-685	기획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